

칼럼

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한 소고



서지호 | 대한건축학회 회장
건국대 건축공학부 교수

건설산업은 국내 경제의 기반 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을 현재의 위치에 오르게 한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다. 과거 1960~70년대에는 전후 복구, 산업 기반시설 재정비,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한 건설산업을 통해 고도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, 1980~90년대에는 국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민간 경제의 성장을 통한 공공 및 민간 건설산업의 고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. 특히, 1973년, 1978년의 석유파동 위기,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국제 금융위기 등의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빠른 극복은 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나 기업의 해외 건설사업 진출 등의 적극적인 건설 정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.

지난 60여 년 간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건설산업은 2011년 현재 건설 수주액 93조원, 관련 업체 5만 7,000여 개 사, 취업자 수 170만 명에 이르는 등 여전히 거대 산업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, GDP 내 건설투자의 비중은 1996년 22.6%에서 2000년 16.7%, 2005년 17.1%, 2010년 15.8%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. 특히, 외환위기 이후의 연평균 건설투자 증가율은 0.3%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.

이러한 건설산업의 침체 또는 위기 상황은 경기 순환과도 연동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났지만 현재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공비 기준의 가격 위주 발주 방식, 성과 지향성 및 규제 순응성 등 우리 건설산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R&D 투자 감소 및 건설기술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한 기술 경쟁력의 열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.

건설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양적 증가를 위한 건설산업 형태를 질적 향상의 건설산업으로 바꾸어야 하며, 선진국이 수행해 온 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 모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.

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시설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, 단기적인 시각에서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. 또한, 최저가낙찰제도와 같은 시공비 기준의 가격 위주 발주 방식에서 벗어나,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한 장기적인 경제효용 개념을 강화함으로써 시공력 및 기술 능력을 우대하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하며, 지속 가능성을 이해하는 건설인의 양성이 이루어져야 국내 건설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.

건설산업의 여건이 급변하는 지금 건설인의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. '건설'은 '공간'이라는 사람 및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공급하는 행위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'공간'의 형태나 성격이 달라질 뿐 그 요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. 오히려 최근의 경향은 더 다양한 '공간'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. 이러한 건설산업을 수행하는 우리 건설인은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. 그리고 건설산업이 사회 환경과 기술의 변화, 발전을 한 자리에서 수용하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. CERIK